

“스포츠 꿈나무들의 아름다운 도전 위해”

최용범 행정부지사, 서울서 중앙기자단과 간담회 가져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에 대한 관심과 준비상황 설명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일 서울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출입중앙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2019 전국소년(장애학생)체육대회는 국내 프로야구, 축구개막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고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돼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개·폐회식 이벤트도 줄어 국민적 관심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대회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세부사항으로 집행위원회(도·시·군, 체육회 관계자, 도 교육청, 도경찰청) 정비사항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준비상황보고회를 통해

16개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복도를 찾는 선수단 및 방문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대회 볼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자 등 도민과 함께하는 성공기념 행사를 개최했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 등이 전북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코스선정 및 전북투어패스 지원계획도 설명했다. 또한 준비상황과 경기진행 상황에 대해 김영민 체전 준비단장과 김승민 전북도 스포츠진흥본부장, 노경일 전북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자세히 설명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스포츠 꿈나무들의 향연인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장애학생의 아름다운 도전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단순 체육행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일 서울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출입중앙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가 아닌 참가 선수단의 화합과 호연지기 기상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아태 마스터즈 대회 유치와 2023년 새만금 세계 썬버리 대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부탁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지난 30일 조배숙 국회의원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하는 벤처교육 ‘호응’

전주대, 조배숙 국회의원·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초청특강 가져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주송)은 30일 ‘조배숙 국회의원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을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의 일환으

로 전북도내 기업 및 기관 대표(CEO)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배숙 의원은 ‘혁신벤처가 미래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벤처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벤처정신을 교육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조배숙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과 안건준 회장(벤처기업협회)은 전북지역 벤처기업에 격려를 보내고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전라북도 벤처 기업들과 도약의 결의를 다졌다.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이인호 회장

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전주대와 공동으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을 발족하고 중소벤처리더스야카데미 및 세계한인무역협회 무역상담회 운영 등의 활동은 지역 벤처기업 협회와 대학 간 성공 협업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고 전북의 주요 산업 기반으로 중소벤처가 자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전임교원 공개 초빙... 신설약대 3명 등 40명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019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을 공개 초빙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이번에 신설되는 약학대학 3명을 비롯해 간호대, 공대, 농생대, 사범대, 사화대, 상대, 생활대, 수의대, 예술대, 인문대, 자연대, 치대, 대학원 BIN융합공학과, 유연인재

전지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모두 40명이다.

접수는 전북대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professor.jnu.ac.kr>)에서 지원서와 연구실적 목록, 자기소개서 등을 입력 후 관련 지원 서류를 전북대 교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접수는 3일 오전 9시부터 15

일 오후 6시까지 전북대 교수초빙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되며,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지원서류도 10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택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전북대 교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교무처의 서류심사와 학내외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 심사, 공개강의 및 세미나 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정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전북대 하반기 전임교원 공개 초빙 지원 자격과 학과별 초빙 분야 및 인원, 제출 서류, 지원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교수초빙 홈페이지(<http://professor.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미래 먹거리에 대한 新 패러다임

전주대,전북도 농생명식품산업 정책·R&D 심포지엄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일 공학관 해동학술정보실에서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R&D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건강과학융합연구소(소장 최용욱)와 농생명융합특화연구소(소장 최규홍)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및 전주대 기관 대표, 연구원, 교수 등 각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도는 농생명식품 특화지역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 농생명식품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밀집된 곳이다.

이들이 협력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을 제시하고 R&D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학술 토론회가 마련됐다.

전주대 최용욱 교수(의과대학대학장 겸 건강과학연구소장)의 축사를 시킨 이번 심포지엄은 전주농생명연구원 유강열 원장이 ‘전북도 농생명식품산업 정책방향과 비전’,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김상범 기획실장이 ‘농촌진

흥청 농식품 연구 현황 및 향후 계획’, 한국식품연구원 김충훈 책임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식품산업기술’을 주제로 향후 우리나라의 농생명 산업과 먹거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 전주대 이정삼 교수가 ‘가능성 기초식품의 개발 전략과 사례 연구’, 장선일 교수가 ‘식물 유래 바이오 활성소재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사례와 발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후 전라북도 농생명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R&D 방향, 농생명 식품 산업을 기반한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전략 등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의과대학대학장 최용욱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농생명 산업과 먹거리 문화의 미래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각 기관의 정보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귀하고 보람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평가기준 확대

전북도교육청이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을 선정·시상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달의 민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해서만 민원만족도 평가를 통해 분기별 1회씩 선정하던 것과 달리 대상과 횟수

를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민원만족도 부분만 반영되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민원인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외되는 민원 건수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선정대상을 도교육청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매월 2명을 선정한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자유학기 운영학교 교감 리더십 강화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학교 교감 리더십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아 이해 및 탐색, 소질과 적성, 삶의 가치관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편성해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연수는 2일 그랜드힐스턴 2층

에서 중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리자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정책 안내’에 이어 중앙대학교박재홍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적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 운영 방안’ 분임토의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축 제6회 품바명인전!

더큰 군산을 위한 행복한 동행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희망을 담은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의회 군산시의회